

흥살림  
HEUKSALIM



# 흥살림, 베트남에 '흥 연구소' 세운다

달랏대학 농과대학 실험실에 입주 예정  
토양 분석 및 토착 미생물 배양 등 계획

흥살림은 지난 1월 9일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청에서 인민위원회 부서기장, 달랏시장, 부시장, 달랏대학교 부총장과 농대 부학장 등과 모임을 갖고 달랏대학교에 입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흥살림이 작년 9월 달랏시에 토양분석 및 미생물 관련 연구 협력을 요청하였고 이에 달랏대학교에서 협력 방법을 제시해 이루어진 것이다. 흥살림은 달랏대학교 농과대학 연구동에 위치한 실험실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토양분석을 통한 토양 상태 진단 및 개량을 위한 컨설팅 제공, 흥살림 미생물 현지 적응 및 효과 검증, 현지 토착 미생물 선별 및 대량 배양, 가축 장내 미생물 연구 등을 달랏대학교와 협력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달랏대학교는 베트남 내 친환경 농업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인 람동성 달랏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이다. 농과대학이 유명하며, 한국어학과도 한 학년에 200명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크다. 예전부터 한국 공공기관이나 기업과 활발한 교류를 해오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과다한 농약

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토양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토양 분석이나 컨설팅이 전무하며, 제대로 된 분석을 위해 유럽이나 기타 다른 국가에 시료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토착 미생물과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상용화된 일반 미생물 자재를 사용하거나 수입 미생물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효과가 높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흥살림이 달랏대학교와 협력하여 현재 베트남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현지 화훼협회나 축산업계쪽에서 문의 및 협력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흥살림은 이런 연구 개발 협력과는 별개로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달랏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학 사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 육성에 도움을 주고 향후 국내 연구를 통한 친환경 농업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 달랏대학교 장학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은 문의 바란다. 문의 (주)흥살림 043-216-8179.



흥살림은 지난 1월 9일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청에서 인민위원회 부서기장, 달랏시장, 부시장, 달랏대학교 부총장과 농대 부학장 등과 모임을 갖고 달랏대학교에 흥 연구소를 세워 입주하기로 결정하였다.

## 흥살림 베트남 현지 법인 현판식



흥살림은 지난 1월 8일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에서 현지 법인(법인명: HEUKSALIM BIO VINA)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 10월 설립된 현지 법인은 친환경 농업 관련 분석, 교육, 컨설팅 업무를 달랏시와 달랏대학교와 협력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친환경 농자재 수입, 제조 유통 및 원료 수출, 친환경 농산물 유통 등의 사업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자연은 품은 건강우유

### 건강우유



권장소비자가격 119,006원 (100ml X 30팩입)

추출가공식품 (살균제품)

흑염소혼합추출액 100%  
[고형분 5% 이상, 흑염소 14.71%(국산)]

충분한 방목장에서 스트레스 없이 자란 흑염소와 최상급 한약재를 더하여 위생적인 시설과 최신 공법으로 잡내를 최대한 제거해 드시기 편한 진액입니다.

**자연은 품은 건강흑염소는**

- 흥살림에서 직접 개발한 안심 사료와 자연친화적으로 방목하여 키운 흑염소를 사용하였습니다.
- GMP 인증 한방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국내산 최상급 한약재를 사용(사인, 감초 수입)하였습니다.
- 3중 마이크로필터 여과방식과 원심분리를 이용하여 기름, 누린내 및 한약 슬러지를 100% 제거하였습니다.
- 사물탕 처방전에 보령, 삼주, 사인, 감초, 생강, 대추 사용(원기회복, 기와 혈을 보함)하였습니다.
- 성마리농장 박사급인력들이 한의사, 한약사와 공동연구개발한 제품입니다.

**상품문의 및 주문전화 : 1544-1092**

쇼핑물주문 :



### 시무식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자”

휴살림은 1월 2일 휴살림 청주센터에서 시무식을 갖고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휴살림은 올해 28년간 쌓아온 미생물 기술을 바탕으로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장기적으로는 바이오 기업으로 나아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의 바른 먹거리 사업과 바이오 기술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토종을 이용한 신약원료개발 사업 등을 모색하며 한 발 한 발 실천에 옮겨나갈 계획이다.

## 전망대

# 친환경농업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1997년 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육성법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농가는 20만호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친환경농업이 한국 농업의 중심으로 성장해 갈 즈음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규제로 그 정책 기조를 바꿔

친환경농업의 성장 날개를 꺾어버렸다. 더불어 2011년까지 친환경농업이 질보다는 양 중심으로 성장해 가면서 이를 시샘하는 세력도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 친환경인증 농가가 늘어나면서 친환경농업계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스스로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친환경농업은 원래 환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생산, 인증, 유통, 정책, 철학이 서로 협력하고 공생해 왔다. 하지만 양적 성장이 거듭되면서 이들 간의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

작했다. 먼저 생산과 소비의 분열, 생산농민들 간의 치열한 경쟁, 농민단체의 불화가 생겨났다. 정부 또한 무분별하게 인증기관을 남발함으로써 갈등을 더욱 키우는 꼴이 되었다. 또 철학이 없는 교육으로 친환경농업의 ‘환경’이라는 목표가 ‘소득 확대’라는 목표에 바뀌어 버렸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농민과 안전에만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의 여론몰이로 정부 정책은 생태적 농업 대신 잔류농약 분석 중심의 인증제도로 변화되었다. 동시에 정부

는 꾸준히 GAP를 양성함으로써 친환경농민과 인증기관들을 다방면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의 문제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원인이라는 반성보다는 인증기관과 농민들의 문제라고 매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친환경농민은 약 5만 농가까지 감소하고 있다. 이런 감소 추세로는 친환경농업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관련 단체, 기관, 농입인들과 협력·상



이태근 휴살림 회장

생할 수 있어야 한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 본래 친환경농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정부 지원의 핵심은 한국농업의 정책 기조를 환경 중심으로 바꾸는 것에 있다. 그랬을 때만이 비로소 한국 농업에 희망과 미래가 생겨날 것이다.

### 마켓투유 앱으로 간편하게 장보자

휴살림의 친환경농축수산물 쇼핑물 ‘마켓투유’가 앱으로 나왔다. 안드로이드는 물론 iOS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소비자들보다 간편하고 쉽게 휴살림 친환경 온라인 장터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마켓투유를 검색해서 다운 받으면 된다.



## 농부의 꿈, 휴살림 도서에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휴살림 유기농 25년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을 통해 당신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휴살리기**  
이태근 저 | 8,000원  
이태근 휴살림 회장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흙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언한 글들을 모았다.

**좋은 흙**  
오철수 저 | 7,000원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오철수 시인이 충북 괴산에 위치한 휴살림 농장에서 농부수업을 받으면서 느낀 단상을 노래한 시를 모았다.

**농부로부터**  
이태근, 천호균 저 | 15,000원  
이태근 휴살림 회장과 썬지농부 천호균이 주고받는 새로운 삶의 풍경에 대한 이야기. '농사, 사회적 기업, 새로운 삶'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휴살림연구소 유기농업총서 시리즈  
**휴살리기** 살아 숨쉬는 건강한 흙을 위한 제언 이태근 저 8,000원 | **병충해방제의 실제와 현장농민 실천사례** 현장농민 사례를 통해 본 병충해 방제의 실제 이태근, 주영직 엮음 6,500원 | **이땅에서 농업을 하는 의미** 농업은 인간성이 존중되는 땅으로 건너가는 배쓰노 유진도 저 / 윤성희 엮음 10,000원 | **흙을 살리는 기쁨, 땅 위에 사는 기쁨** 한국 농업의 희망을 길어 올리는 샘물같은 농업 칼럼 이태근 저 7,000원 | **참농부** 더불어 사는 농부의 꿈 이우성 저 8,000원 | **유기농업이 희망이다** 유기농업을 전 국민 생활과제로 만들기 위한 실천과제 휴살림출판부 엮음 10,000원 | **유기농업의 이론과 실제** 유기농업기사 대비 수험도서 이태근 엮음 15,000원 | **유기재배,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유기재배의 기초지식 니시오 미즈노리 저 / 서종호 엮음 15,000원 | **농사짓는 즐거움 젊은 농부의 희망** 이땅, 자연, 사람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 이우성 엮음, 글 10,000원 | **한반영양학** 개론 건강한 먹거리 문화 창조를 위한 한의학과 영양학의 만남 최승 저 25,000원

※ 휴살림 후원회원은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구입 및 문의사항 휴살림 출판 사무국 043-833-5004

발행처 충북 괴산군 불경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 | 발행처 (사)휴살림연구소 | 발행인·편집인 석종욱 | 편집위원 장 경우창 | 편집위원 박석준 오철수 | 등록번호 충북라010-25(1998년 9월 3일) | 본부 (367-911)충북 괴산군 불경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전화 043)833-8179·전송 043)833-2959 | 오창사무소 (363-885)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85(각리 642-6) 오창벤처단지 안·전화 043)216-8179·전송 043)216-2959 | 청주센터 (363-923)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전화 043)212-0935·전송 043)216-0936 | 토종연구소 (367-912)충북 괴산군 불경면 쇠실로 286-138(삼방리 186-1)·전화 043)833-5004 | 휴살림연수원 (367-911)충북 괴산군 불경면 한불로 영천6길 11-1·전화 043)833-5004

# “마이크로바이옴 알아야 농사 잘 짓는다”

## 사진으로 보는 1월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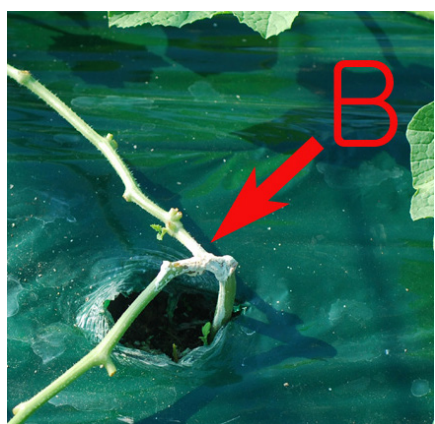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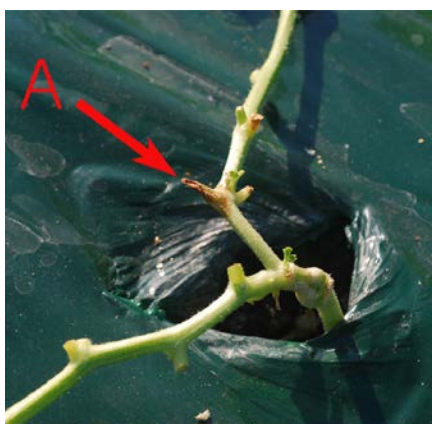
## ‘유기농업의 토양관리’ 강의

### 흙사랑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대상 교육

‘이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알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지난 1월 10일 흙사랑은 흙사랑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의 토양관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윤성희 흙사랑 전무이사는 농업에 있어서 특히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식물, 동물 등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생물 전체로 이들의 유전정보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미생물이 서식하는 장소는 인체, 식물, 토양 등 다양한데 서식지 환경에 맞추어 마이크로바이옴이 자리

잡게 된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영역은 크게 근권, 내권, 엽권으로 나눌 수 있다. 식물은 미생물에게 안전하고 먹거리가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고 미생물은 안락한 보금자리를 찾아 정착한다.<인테리빙 참조>  
 미생물이 풍부한 잘 부숙된 퇴비는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필리핀 바나나 농장에서 파나마병을 예방하고 생장을 촉진함으로써 수출 100톤을 달성한 흙사랑 균배양체가 바로 이런 좋은 예다. 이제 식물과 식물을 둘러싼 동물과 미생물까지 고루 헤아릴 수 있어야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 지금 현장에선



이일웅 농부에 의하면 참외 무름병이 생겼을 때(왼쪽 사진) 흙살림 황수화제 원액을 붓으로 칠해주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오른쪽 사진)으로 나타났다.

## 참외 무름병에 ‘흙살림 황수화제’

**성주 이일웅**  
 성주에서 유기농 참외를 재배하는 이일웅 농부는 올해도 참외를 더 잘 키우기 위해 도전적인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올 겨울에는 참외 무름병에 흙살림의 친환경 목공시 제품 ‘흙살림 황수화제’ 원액을 붓으로 발병부위에 칠해주었

더니(B) 효과가 매우 높았다고 한다. 무름병(A)은 접목 부위나 순정리할 때 잘린 부분이 물러서 썩는 증상의 병이다. 유향의 살균력이 이 부분에 작용하는 것이다.  
 단, 황수화제는 희석하더라도 참외의 흰가루병 옆면살포는 피해야 한다. 약해가 나오기 때문이다.



고추씨를 파종해서 20일 가까이 키운 모종을 트레이에 옮겨 심는 가식을 하고 있다. 고추 모종은 가식 후 80일 정도 자라면 정식을 하게 된다.

## 고추 모종 가식 “올해도 잘 커다오”

**음성 성기남**  
 1월 28일에 찾은 충북 음성 성기남 농가는 고추 모종을 가식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지난 1월 10일 파종 후 18일 정도 키워낸 모종이었다. 파종 때도 그렇고 가식 때도 상토는 ‘흙살림 원예 썩나라’를 사용하고 있었다. 가식까지는 추비가 필요없지만 4월 중순 이루어지는 정식까지는 모종 상태를 보

아서 한 번 정도 추비를 준다고 한다. 보통 추비는 흙살림 생선 아미노산을 주원료로 해서 만든 액비를 사용한다.  
 모종을 키우는 것은 온도관리가 제일 우선이다. 최저온도 10℃, 최고온도 30℃ 안으로 환경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모 잘 키우는 것이 반 농사다”는 성 농부의 손길이 바쁘다.



임형락씨는 방울토마토 받을 정리하고 새로운 작물을 준비하고 있다.

## 겨울 가뭄에 방울토마토 걱정되네

**충주 임형락**  
 겨울 가뭄이 꽤나 심각한 모양새다. 기상청은 1월말까지 최악의 경우 2월말까지 “별다른 눈·비 소식이 없이 건조한 대기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고 예보했다. 1월에 쌓인 눈이 관측되지 않은 건 60년 만에 처음이라고도 한다. 전국 대부분이 지난 12월말부터 지금까지 적설량이 10cm를 넘지 못하고 있다. 충주의 임형락 농부는 원래 방울토마토를 심으려고 했던 받을 다른 곳

으로 옮기려고 한다. 가뭄으로 인해 물 수위가 낮아져 지하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을 끌어올리는 위치를 더 낮추어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않아 걱정이다. 현재 썩채소를 수확하고 있는 받을 정리하고 방울토마토를 심어야 할지, 새로운 받을 구해서 심어야 할지 고민 중이다. 겨울 가뭄이 심해질수록 올 봄 농부의 마음도 바짝바짝 타들어 가진 않을지 걱정이다.

# 불가항력적 농약 오염시 처분 기준 개선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 1차 시정 명령, 2차 인증 취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인증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17년 정부에서 마련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이 반영되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증사업자의 친환경인증제도 기본교육 의무화 (2020.1.1. 시행)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년에 1회 이수해야 하며 신규는 3시간 갱신은 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기본교육 추진을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교육기관을 통해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 및 처분 강화 (2019.4.1. 시행)

종전에는 친환경(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계란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어도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019년 4월 1일부터는 강화된 처분기준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가 축사 또는 축사 주변에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친환경인증 축산물에서 농

약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강화 (2019.7.1. 시행)

인증심사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재취업을 차단하고자 자격기준 중 공무원 재직 등 관련 업무 경력만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또한, 친환경축산물인증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자격기준에 “수의사” 자격을 추가하였다. 현행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관련 경력 5년 이상이 국

가기술자격 보유자, 수의사로 개정됐다.

■ 불가항력적인 오염에 대한 처분기준 개선 (2019.7.1. 시행)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인증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였다. 앞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오염으로 입증되고,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개선하였다. 인증사업자는 1차 시정명령, 2차 인증취소가 된

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친환경인증품으로 판매할 수는 없다.

■ 친환경인증 표시항목 간소화 (2019.7.1. 시행)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 표시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을 제외하였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표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제도 주요 개선사항(개정·공포: '18.12.31., 시행: '19.7.1.)

구분	종전	개선	비고(시행일 등)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친환경농업 교육 이수 의무화	<신설>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친환경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20.1.1.) *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해 '19.7.1.부터 사전교육 실시 예정
친환경인증 축산물 인증기준 및 처분 강화	<신설> ☞ 축사·축사 주변에 농약을 사용하거나,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시정명령”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 축사·축사 주변 사용금지 ●축산물에서 농약검출 금지 ☞ 축사·축사 주변에 농약을 사용하거나,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인증취소”	●시행('19.4.1.)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중 경력규정 폐지 및 수의사 자격 추가	●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기사, 산업기사) ●인증심사 경력 5년 이상	●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기사, 산업기사) ●인증심사 경력 5년 이상(폐지) ●수의사 자격(추가)	●시행('19.7.1.)
불가항력적 오염에 따른 사업자 처분기준 개선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농약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고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는 경우 * 인증취소	●비산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는 경우 * (1차) 시정명령, (2차) 인증취소	●시행('19.7.1.)
인증표시기준 개선	●인증사업자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및 주소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및 주소 ●인증기관명 삭제 ●인증번호	●시행('19.7.1.) *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표시는 '21.12.31.까지 함께 사용 가능

## 꼭지 떼어 낸 방울토마토가 더 ‘싱싱’

### 보관 중 상품성 유지율 60%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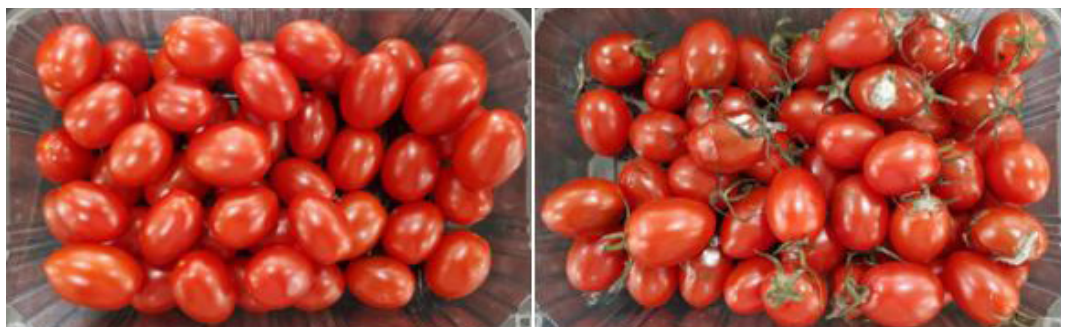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은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꼭지를 떼어내면 꼭지가 있는 것보다 저장 기간 중 상품성을 유지하는 비율이 약 60% 늘어난다고 밝혔다.

방울토마토는 ‘꼭지가 있어야 신선하다’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자리 잡으면서 농가에서는 꼭지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품종 특성상 작은 충격에도 꼭지가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딸 때부터 유통될 때까지 꼭지를 보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농산물 표준규격’을 보면 알이 큰 토마토는 꼭지와 껍질의 탄력

으로 신선도를 판단하지만, 방울토마토는 껍질의 탄력만으로 신선도를 확인하고 있다.

실험은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꼭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상품성 과실 비율(비상품과율)과 단맛(당도), 단단함(경도) 등을 측정했다. 비상품과율 부패, 수침(조직이 물러 과실 표면이 움푹 들어감), 찢김, 변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품성 없는 과실을 말한다.

수확 후 꼭지를 떼어 보관한 방울토마토를 6일째 되는 날 확인한 결과, 상품성 없는 과실 비율이 4.5%였으나 꼭지가 있는 것은 12.4%로 약 3



꼭지를 없앤 방울토마토(왼쪽)와 꼭지가 붙어있는 방울토마토의 수확 후 20일 모습 비교 사진 출처 농촌진흥청

배 많았다. 수확한 지 20일이 되자 색이 변하며 썩는 열매의 비율이 꼭지를 떼어 낸 방울토마토(19.7%)보다 꼭지가 있는 것(74.6%)에서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 열매의 무게는 꼭지의 호흡으로 인해 꼭지가 달린 방울토마토가 더 빨리 줄었다. 다만, 단맛

이나 단단한 정도는 꼭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신선도와 꼭지의 달림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꼭지를 떼어내면 오랫동안 보관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꼭지로 인해 표면에 상처가 나거나 부패균이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번 실험이 소비자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유통 기간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곡에 쌀은 빠져도 콩은 빠지지 않았다

## 윤성희 소장의 종자 이야기<4>

우리 역사와 함께한 콩은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사랑을 받아왔던 토종 재래 자원이다. 우수품종의 보급과 농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선조들이 물려준 다양한 콩 자원이 우리의 땅에서 점차 소멸되어가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사랑했던 콩을 수회에 걸쳐서 찾아가 본다.

### 토종콩<1> 그 많던 토종콩은 다 어디로 갔나?

■ 콩에 얽힌 소소한 이야기  
우렁콩, 매눈이콩, 홀애비밤콩, 홀애미콩, 푸르데콩, 선비잡이콩, 제비콩, 개눈깔콩, 정승콩, 불콩, 아주까리밤콩, 주년이콩, 붉으데콩, 붉은밤콩, 김정콩, 독새기콩, 한아가리콩, 부채콩, 등티기콩, 오가피콩, 납떼기콩, 새알콩, 나물콩, 장단콩, 왕콩, 수박태, 오리알태, 신날거리콩, 질금콩, 보약다리콩.....

지금은 거의 다 소멸되어 가거나 잊혀져가는 이름들이지만, 우리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오던 콩 품종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이다. 콩은 한자로 대두(大豆), 태(太)이며 영어로는 Soybean이고 학술명으로는 *Glycine max* (L.) Merr.이다. 분류학자 린네가 붙인 속명(屬名) *Glycine*은 같은 이름의 아미노산 때문에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의 맛이 달다는 *glykós*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콩은 식량작물 중에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고르게 함유한 가장 완벽한 식품원이다. 이러한 이유로 육식 위주의 식단을 대체할 때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작물이기도 하다. 또한 종자형태 그 자체로 익히기만 하여 식량으로 곧바로 이용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작물이기도 하다. 동북아시아에서 4,000여

년 전부터 재배되어 왔으며, 옛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곡식을 말할 때 반드시 오곡(五穀)이나 구곡(九穀)을 얘기하게 된다. 오곡이나 구곡 속에 쌀이 빠져있던 시대는 있었지만 콩이 빠진 경우는 없었다. 동아시아에서 콩이 얼마나 중요한 작물이었는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콩이라고 하면 콩(大豆), 팥(小豆), 동부, 완두, 녹두, 강낭콩 등 콩과작물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한자표기 대두(大豆)에 해당하는 한글 표기는 “콩”으로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1446년 발간, 1940년 발견)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즉, 콩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우리민족이 사용해 온 고유어였던 것이다. 송나라 사신 손목이 고려를 방문하고 작성한 전문록인 「계림유사」(1103년)에는 고려인들은 콩을 “태”라고(豆曰太) 하였다 한다. 이는 서양이나 동남아시아에 콩이 전파되기 훨씬 전부터 이 지역에서는 재배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선 초기 강희맹의 「금양잡록」(1492년)에 소개되는 콩 8품종에 한자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미술관소장. 초성인 “ㄱ”의 사례에서 콩이 등장한다.

태자로 표기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서리태, 백태 등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태”자를 계속 사용해오고 있다.

검은콩(黑太), 잘외콩(者乙外太), 누른콩(黃太), 오해와디콩(吾海波知太), 불콩(火太), 왁대콩(臥叱多太), 온되콩(百升太), 녹월콩(六月太) : 금양잡록에 기록된 콩 품종

■ 콩의 원산지과 다양성의 회복  
바빌로프(N. I. Vavilov 1887~1942)가 세계 각지의 작물 유전자원을 수집 탐사하면서 유전자 중심설(1926년)을 주창하였다. 어떤 식물자원이든 그 다양성은 유전자 중심지로 갈수록 대폭 커지고 우성형질이 많다는 이론이다. 이 학설에 의하면 콩(대두)의 중심지를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한국, 일본 등지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에는 콩의 선조라 할 수 있는 우성인 야생콩(돌콩 *Glycine soja*)

### 콩이란 말은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고유어 제민요술에 황고려두·흑고려두 등 기록 고구려 시대부터 콩은 이미 유명한 작물

참고로, 동아시아를 제외한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콩이란 우리에게 익숙한 콩(大豆, soybean), 팥(小豆, redbean)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서구나 신대륙 지역에서 본격적인 대두 재배는 불과 100여년도 안된 도입작물일 뿐이다. 지난 2016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콩의 해(International Year of Pulses)”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콩(Pulse)은 대두, 땅콩, 채소용 콩 등이 제외된 클로버나 알팔파 같은 콩과 목초류를 주로 의미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를 그냥 “콩”으로 번역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우리 전통의 콩이 드디어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가보다” 하며 동상이몽으로 고개를 끄덕이곤 하였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란 말이 있다. 콩 심은데 클로버가 난다면 말이 되겠는가!

이 흔히 자생하고, 중간형인 반야생콩(*Glycine glabris*)도 발견되고, 재배종(*Glycine max*)의 변이도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콩의 원산지답게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다양한 콩품종이 재배되어 왔고, 그에 따라 다양한 콩관련 식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콩을 자원으로 이용하는 식품문화를 향유하는 지역을 묶어 “대두문화권 大豆文化圈”으로 봐야 한다는 분(한국전래대두이용음식의 조리가공사적연구, 1993. 장지현)도 있다. 일리 있는 말로 콩이 현재의 국경에 갇혀 이해되는 것은 동아시아의 콩문화를 너무 좁게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싶다. 현대문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 시시각각 줄고 있다는 점이다. 생물종다양성도 빠르게 줄고 있지만, 몇 안 되는 특정 품종만의 재배로 인한 유전적다양성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도 인류에게는 불안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유월두’처럼 빨리 수확되는 품종도 있고, 밥에 즐겨 넣는 ‘서리태’처럼 늦게 수확되는 품종도 있어서 다양한 작부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고, 용도에 따라서는 콩나물용, 장류용, 두부용, 두유용, 혼반용(밥밀콩), 고물용, 약용, 반찬용 등이 있어서 그 다양성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유전적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고유한 토종자원으로 콩만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 가지 용도 안에서도 한 가지 품종만 재배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품종이 각지 환경과 식문화에 맞게 재배되었으니, 미국이 1901년부터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콩 유전자원을 수집해간 것만 5,000여점이 넘었다는 것이 헛말이 아니다. 그들은 이러한 콩 유전자원 확보를 통해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곳 토질과 기후에 맞게 개량하여 세계 최대 콩생산국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그 콩을 수입하고 있는 처지이다.

■ 토종콩을 찾아서  
제민요술<가사협, 550년경, 산동성>에 콩(大豆)을 흰콩(백대두)과 검은콩(흑대두) 2가지로 구분하였고, 황고려두(黃高麗豆), 흑고려두(黑高麗豆), 연두(鸞豆), 비두(躡豆) 4종류를 기록하였다. 품종 이름에 고려(高麗)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고려건국 이전이기 때문에 고구려로 봐야하고, 당시 고구려 지역의 콩이 얼마나 유명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고구려인들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로, 전시에 필요한 단백질은 콩에서 얻었고 겨울철에 부족한 채소는 콩나물을 키워서 해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을 정도다. 1500여 년 전부터 중국인들조차 인정하고 고구려의 토종콩은 과연 이어져오고 있는 것일까. 임원경제지에 유집(儒執)으로 기록된 “선비잡이콩”은 또한 무엇이며, 내가 대학시절 배우던 교재(田作, 향문사)에 밥밀콩 중에서 가장 양질이었던 “아주까리밤콩”은 과연 어디로 갔는지 다음호부터 하나씩 찾아보도록 한다.

글 윤성희 토종연구소 소장



다양한 크기·모양의 토종콩

# 믿고 탔던 마일린 택시의 황당한 요금

휴살림은 지난해 10월 베트남에 현지 법인(법인명 : HEUKSALIM BIO VINA)을 설립하고 올해 1월 8일 람동성 달랏시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베트남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휴살림 신문은 독자들과 함께 베트남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베트남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지면에 실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생생 베트남 현장<1>

해외 사업 차 올해로 3년째 베트남을 다니고 있다. 어느 정도 베트남을 알았다고 생각할 때면 한 번씩 황당한 경험을 겪고 있어 아직은 한 참 멀었다는 생각을 한다. 요즘 블로그나 SNS를 통해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내가 현지에서 겪은 실화를 하나씩 적어보려 한다.  
첫 회부터 사기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베트남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지만 외국인이라면 무조건 거쳐야 되는 공항에 대한 내용이라 도움이 될 것 같아 적어본다.  
글 류훈희 개발/해외 팀장



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 500m 타고 요금 2만 5,000원을 내야하는 황당한 사건을 겪기도 했다.

1. 공항 택시 사기  
작년 9월에 겪은 사건으로 호치민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시내(1군)에 있는 호텔에 가려고 택시를 찾고 있었다. 나름 경험이 있어 베트남에서는 흰색 비나선 택시나 초록색 마일린 택시를 타면 사기는 안 당한다고 알고 있었기에 택시 정류장으로 가서 목적지를 알려주니 쿠폰을 하나 주는게 아닌가. 좀 찻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믿고 타는 마일린 택시라 탑승을 했는데 요금 올라가는 것이 장난이 아닌 것이었다. 보통 공항에서 시내까지 10만동(5000원) 내외면 되는데 공항도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는데 벌써 5만동(2500원)을 가르키는게 아닌가. 참고로 기본요금은 차종에 따라 5천동에서 1만동 정도이며, 주행거리 1km 당 약 1만동 정도 올라간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6km 내외이다. 사기라 느낀 즉시 약

속이 급히 생겨서 바로 앞에 있는 IBIS HOTEL로 가야 된다고 하니 기사(이하 '사기꾼') 얼굴이 굳어지며 투덜뷔다. 약 500미터 거리의 IBIS HOTEL에 도착하니 요금은 15만동(보통 요금의 10배 이상 나온 상태).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사기꾼이 자기는 비싼 쿠폰을 공항에 지급하고 나를 태운 것이라서 돈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서 무시하고 15만동 주고 내리려 했으나 문이 안 열리는게 아닌가. 그렇다. 이 택시는 사기꾼이 밖에서 열어 주지 않으면 내리지 못하는 택시인 것이다. 순간 식은땀이 나고 당황하게 되니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50만동(2만 5천원)에 합의하고 내렸다. 500m 타고 왔는데... 결국 IBIS HOTEL 프론트 직원에게 GRAB 차량 불러 달라고 해서 7만동(3500원)에서

내 호텔까지 갔다는 슬프고도 화나는 실화.

2. 공항 GRAB 사기  
한 번 된통 당하고 난 다음 한국에서 GRAB이라는 차량 콜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올해 1월 출장을 갔다. UBER를 인수한 GRAB은 휴대폰으로 목적지를 알려주면 차량 번호와 금액을 알려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어플이다. 물론 가끔 기사들이 못된 짓을 한다고 하는 뉴스도 있긴 하지만 사기는 없다고 굳게 믿고 이용을 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시내에 있는 호텔 이름을 지정하니 84000동(4200원)에 차량이 안내되었다. 차량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한 남자가 오면서 자기차량 번호와 금액을 알려주며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인지 물어 왔다. 금액과 차량 번호가 일치하여 그렇다고 하니 차량이 주차장에

있다고 가자는게 아닌가. 역시 찻찻함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GRAB 아닌가. 하지만 이번에도... 차량에 탑승하니 공항 주차비를 선불로 달라고 한다. 얼마냐고 물어보니 11500동. 소액이다. 2만동을 주니 여기는 무인 정산 시스템이라 잔액이 정확해야 한다. 2만동을 주려고 지갑을 열었을 때 그 사기꾼의 눈빛은 잇을 수가 없다. 보통 외국인들은 공항에 도착해서 환전을 하기에 지갑에 돈이 어느 정도 있다. 이를 노리는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사기라 직감한 후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지켜봤다. 공항 주차비를 알고 있던 나는 1만동이라고 이야기하니 얼마 전에 변경되었다며, 아까 지갑에 잔돈 있는 것을 봤다며 지갑을 주면 자기가 11,500동만 빼고 준다고 한다. 그렇다. 돈 몽치를 받아서 밀장 빼기(?)하는 그런 사기 수법이였다. 내가 직접 준

다고 지갑을 주지 않는 실랑이를 한 10분 정도하니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빼주면서 그냥 가란다. 돈은 뺏기지 않았지만 또 사기꾼을 만났다는 일 자체가 짜증나게 하였다.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니 흔한 사기 수법이였다. 위 두 사기꾼들의 공통점. 차량 탑승 전까지 캐리어를 먼저 들어주며 어느 나라에서 왔냐는 등의 극도의 친절함을 보인다는 것!  
베트남을 다니면서 위와 같은 사기를 당하게 되면 정말정이 푹푹 떨어지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넘기곤 한다. 어느 나라든 공항 사기는 비일비재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도 공항에서 강남까지 택시비로 수십만원 결제 했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고 있으니, 공항 사기를 제외하면 베트남은 음식, 사람, 문화 등 다 녀본 국가 중 손에 꼽힐 정도로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 잿빛곰팡이병 잡아라! 방제와 생육촉진을 한 번에!

# 토리



유해식물병원균을 억제하는 토착미생물 (특허번호 0417632)로 잿빛곰팡이병, 탄저병, 균핵병, 잎곰팡이병, 모잘록병, 녹병 등 주요 토양 및 공기전염병원균을 억제합니다.

\*등록공사 : 공시-2-4-58  
\*등록번호 : 43-살균-1    \*품 목 명 : 트리코델마 하지아눔 YC459 분상제

### 딸기 흰가루 이젠 안녕~!

예방과 방제를 겸비한 작물보호제

# 잎살림!

휴살림 미생물 배양기술과 농촌 진흥청 특허 미생물(특허번호 100407074)로 휴과 환경에 유익한 제품입니다.

\* 바실러스서브틸리스 JKK238 액상제



구입 및 문의사항    휴살림 농자재 사업본부 043-216-8179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 휴살림 | [shop.heuksalim.com](http://shop.heuksalim.com)

# 2019년 휴살림 새 농자재로 풍년 이루세요!

## 부숙 유기물 (부숙톱밥)

흙을 흠답게 하는 '부숙 유기물 (부숙톱밥)' 시비설계 맞춤 공급

'모든 부식은 유기물이지만 모든 유기물을 부식이라고 할 수 없다.' 톱밥(퇴비)이 발효와 부숙을 거쳐 고분자화합물인 부식(humic acid 외)을 형성한다. 이것이 여러 이화학, 생물상과 만나 '토양 고유의 유기물화'되어 '식물을 키우는 흙 본래의 능력'을 키운다고 한다.

많은 농부들이 살포 편리성과 질소 및 유기물 함량 등으로 유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리그닌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유박만 가지고서는 '흙을 흠답게' 할 수 없다.

'유기질 비료와 유기물을 다른 시선으로' 설계하는 것이 절실하다 생각되어 한정량일 수도 있겠지만, 부숙도가 훌륭한 유기물(부숙톱밥 외) 원료를 찾아 보급하고 토양관리 시비설계에 응용하고 있다. 1,300리터/1톤백



▲손에 든 부숙톱밥.  
▶부숙톱밥 100%로 화분발아 및 생육 모습.



## 휴살림 모두씩

농약사용을 확~ 줄일 수 있는 다기능 병충해 방제제 '휴살림 모두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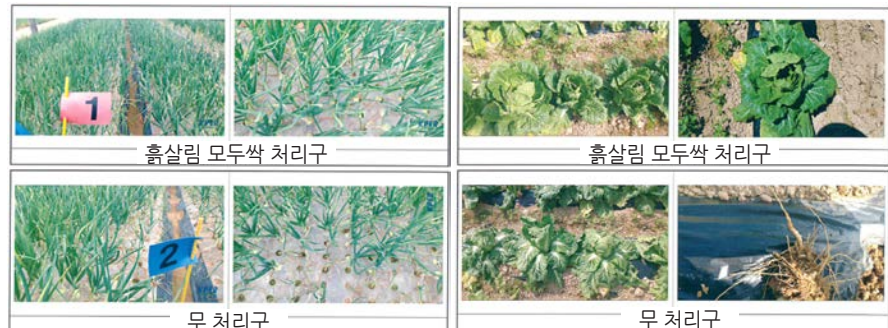


일반 관행재배도 오남용 없는 철저한 화학농약 사용 준수가 필수인 PLS시대에 접어들었다. 다양한 작물과 병충해 적용시험을 거친 '휴살림 모두씩'을 활용하여 혼용이나 대체살포로 화학농약 사용도 줄이고 보다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황이 필요한 시대'를 역설하며, 유향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주)나라바이오 김일호 대표가 개발, 생산하는 자재로 휴살림의 특허미생물 기술이 스며들어 있다. 서로 다른 기술의 융합이라는 특별함으로 부식이나 약해가 거의 없도록 제독되었으며, 나노화로 미세 가공하여 침투 및 확산이 잘 되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보르도액·동제·알칼리성 및 유황 함유제제 등 일부를 제외하곤 혼용이 가능하여 관주나 엽면시비 모두 효율적이고 원활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농작물에 물질운반기작 특성을 가진 황을 공급하여 생육과 품질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덤으로, 친환경 인증농가나 화학농약 사용을 꺼리는 농가를 위한 훌륭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본다. 이 제품 '모두씩'은 휴살림 회원 및 단체에 직판형태로 운영된다. 250~500배 희석사용. 공시가격 16,000원/1병(1kg)



무름병 방제 효과 모습. 뿌리혹병 방제 효과 모습.

● 효과목록 및 시험방제율

해당작물병해충	방제율(%)	해당작물병해충	방제율(%)
고추 목화진딧물	57.9	멜론 흰가루	64.2
수박목화진딧물	51.3	오이 노균병	60.9
고추탄저병	65.9	배 검은별무늬병	64.1
수박점박이응애	52.6	오이 총채벌레	57.1
딸기 잣빛곰팡이병(수경)	63.1	배추 뿌리혹병	87.6

양파 노균병	69.8	참외 흰가루병	59.8
딸기 잣빛곰팡이병(토경)	60.7	벼 잎도열병	66.8
양파 무름병	67.2	토마토 온실가루이	59.4
마늘 무름병	66.9	벼 잎짚마름병	66.4
양파 흑색썩음균핵병	79.4	토마토 잎곰팡이병	66.3

## 씩들어

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추출물의 해충 방제제 '씩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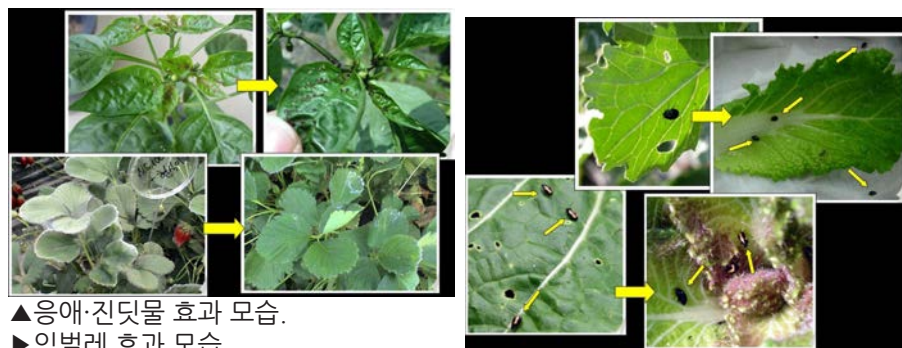


기존의 친환경 약제는 고삼추출물이 주를 이루어 내성 극복이나 교차 가능한 약제를 원하는 현장요구들이 있었다. 이에 성분계열도 다르고, 다양한 농업 해충에 살충 효과가 우수한 데리스, 마늘 등의 추출물 및 오일로 살충력을 극대화한 제품을 만들었다.

현장 적용시험 결과, 응애를 비롯하여 진딧물과 잎벌레류, 그리고 가루이 등에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선녀벌레에도 높은 살충력을 나타내었다. 해충 발생초기에 1,000배액을 5~7일 간격으로 1~2회 살포, 다발생시에는 희석배율을 높이거나 살포 간격을 줄이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기존 약제에 대해

효과가 떨어지는 포장에 '씩들어'를 적용해 본 결과, 높은 살충효과를 나타내어 휴살림의 기존 친환경 살충제들과 교차살포나 혼용살포시 현장 애로점을 많이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안전성검사, 효과시험 및 현장적용이 모두 끝난 상태로, 2월 말경에 유기농업자재 공시등록이 나올 예정이다. 휴살림은 원료입고 및 제품 생산시 자체 잔류농약검사 등의 안전성관리 프로세스로 농약혼입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공시가격 50,000원/1병(500ml)



▲응애·진딧물 효과 모습.  
▶잎벌레 효과 모습.

## 원예 아미노볼

가정 원예! 한 스푼으로 영양 쭉쭉 편리한 유기농비료 '원예 아미노볼'



가정내 화분에 한 스푼, 화단 텃밭에 한 줌만 뿌려주면 식물영양을 듬뿍 주는 '원예용 아미노볼'을 출시했다.

예로부터 식물(작물)한테 최고 보약이라는 콩깍묵(대두) 원료를 사용하여 뿌리에 좋은 부식산(Humic acid)과 근권 다기능 특허미생물(Bacillus sp.) 추출물을 첨가하여 만들었다. 게다가 원료가 발효과정까지 거쳐있는 것이라 식물에 필요한 아미노산 조성이 풍부하고 양분 흡수가 빠르게 된다. 또한 Non-GMO 원료사용과 잔류농약이 없는 등 안전성에 있어 검증 및 확보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며,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 목록에 등

재되어 있는 제품이다. 소비자들의 보관 및 사용이 편리하도록 알갱이 형태로 제조되었으며, 병에 담겨있다. 화학첨가물이 전혀 없어 보관유통 과정이나 사용 후 미생물의 활동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해가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소비자 가격 5,000원/1병(350g)



최초 화분 사진(6월 18일)

처리 사진(6월 30일)-왼쪽:처리/오른쪽:무처리

# 겨울에도 청벌레가 스멀스멀 나타나다

## 아가씨의 꿈이 자라는 허브 농장<4>

여름만큼 심하진 않아 직접 손으로 처리



루꼴라에 청벌레가 나타나 손으로 잡고 있다.(위 사진) 집 주위에는 나무들을 하나 둘 심기 시작했다.(아래 사진)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 하는 연말연시에는 조용하던 마을 전체가 부산해진다. 12월 마지막 주 중 하루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마을 총회가 개최되고 1월 첫 주 중 하루는 회관에서 큰 술에 떡국을 끓여 나눠 먹는다. 특히 1년에 한번 열리는 마을 총회는 평소엔 바빠서 회관에 왕래를 거의 안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참석하시기 때문에 마을 행사들 중 가장 크게 개최된다고 한다. 행사 준비를 위해 소소한 일들을 도와 드리며 마을 어르신들과 조금은 가까워진 기분이었다.

1월에 들어서, 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아직 행정적으로 준공 절차가 남았지만, 농장 일을 하는 틈틈이 내부 마무리 작업도 할 겸 간단한 짐만 꾸러 임시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마을 안에서 살게 되니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 많이 생겼다. 농장이 가까워 일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 졌을 뿐만 아니라 아침 산책을 나오신 이웃 어르신들과 차도 마시고, 가끔씩 기다란 발을 가로 질러 가서 옆집 아주머니와 음식도 나누곤 한다.

마을 안에는 조그마한 가게도, 식당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려 해도 차로 고개 하나를 넘

어야만 한다. 그래서인지 이웃 어르신들께서 멀리서 장을 보고 오시는 길에 인근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바닐라 라떼나 제과점 빵, 치킨박스 등을 건네주고 가시곤 한다. 마을에서 제일 막내여서 예쁘게 봐주시는 건지,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느껴진다. 아직 이삿짐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오고 가는 길에 건네주신 두루마리 휴지와 각종 세탁 세제들이 방 한 칸에 탐처럼 쌓여 있다. 도시에서 살 때는

### 집 완성되면서 거주 시작 마을 어르신 차 마시러 방문 옆집과 음식도 나눠먹어 이웃들과 교류에 마음 따듯

느껴보지 못했던 이웃들과의 교류에서 느끼는 정은 참 따뜻한 것 같다.

1월이 되어서도 여전히 허브 하우스에서는 잡초가 자라고 나는 열심히 루꼴라와 고수 사이에 숨어있는 잡초를 뽑는다. 한 겨울에 조금이라도 온도를 더 높여주기 위해 하우스 안에 자투리 비닐을 연결하여 커튼도 달았다. 마른 풀만 가득한 논밭을 보다가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 봄 세상이다.

여름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몇 개의 루꼴라에 스물스물 청벌레가 나타났다. 맨 앞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손가락 한 마디만큼 자란 잡초를 뽑는 길에 벌레까지 손으로 잡았다. 그나마 루꼴라에 큰 피해를 입히는 벼룩잎벌레나 나방 성체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봄부터는 바질과 로즈마리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자재들로 어지러운 나머지 하우스들을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루꼴라와 고수를 관리하면서 호두나무 묘목이 자라고 있는 과원도 돌보고, 집 내부 작업들도 직접 해야만 하여 영 시간이 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봄이 오기 전에 블루베리 묘목을 들여오기 위해 방조망과 발자리를 고르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작업 중에 겸사겸사 소하천과 닿아 있는 경사면에는 왕벚나무를, 과원 뒤편에는 이팝나무를 심었다. 집 가까운 곳엔 열매를 따기 쉽도록 산딸나무를 몇 그루 심었다. 새로운 나무가 하나, 둘 늘어날수록 마음은 이미 꽃이라도 본 듯 즐겁다. 굵이 굵이 돌아 감기는 과원길을 오르며 연두 빛 봄과 꽃향기를 그릴 수 있는 나는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청년농부가 된다.

글 이수진 농부



**상자텃밭용 유기배양토**  
**작은텃밭 18L**

유용미생물과 양질의 유기물 등으로 배합, 발효되어 가볍고 영양 가득!  
작물재배에 알맞습니다.



**텃밭용 부숙 발효 퇴비**  
**휴살림균배양체그린 10kg**

작물에 천연양분, 미생물, 발효유기물을 동시에 공급! 작물 심기 10일 전에 살포하고 발을 만들어 줍니다.  
5평 텃밭에 1~2포 정도 사용하면 돼요.



**상자 텃밭용 발효 퇴비**  
**원예용휴나라 1kg**

유기농 원료로 부숙, 발효된 유기질 퇴비. 작물이 심어진 화분에 한 주먹씩 공급하면 충분합니다.



**텃밭용 종합관리세트**  
**텃밭사남매**

병이 생겼을 때 - 잎살림S  
작물을 튼튼하게! - 잎나라  
작물에 생기를! - 비타엑스  
벌레가 생겼을 때 - 진달래그린



**실내텃밭으로 안성맞춤**  
**그로우백 21L**

잎채소용과 열매채소용 두가지로, 손잡이와 물빠짐 구멍이 있어 실내 텃밭으로 안성맞춤!



# 진딧물 피해로 딸기체험행사도 포기

## 가족의 행복을 꿈꾸는 딸기농장<4>

### 판매 못한 딸기로 잼 가공만 되풀이

딸기를 심고 첫 난관인 탄저병으로 죽은 딸기모들의 자리는 다시 심어주었어요. 이렇게 한숨을 돌렸는데 또다시 찾아온 것은 농작물에 흔하게 생기는 진딧물이었어요.

일반 관행 농사에서 진딧물은 방제로 잘 잡히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친환경에서는 친환경자재들이 보통 오일 성분들이 대부분 있어서 딸기꽃이 피어 있을 때 방제를 하게 되면 수정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오일 성분을 적게 희석하면 잘 방제가 되지 않으니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진딧물 방제할 시기가 늦어 피해가 많았답니다. 진딧물의 영향으로 생과로 판매가 어려운 것은 딸기 가공을 하게 되었어요. 딸기가공으로 딸기잼, 딸기쿠포트, 딸기퓨레, 딸기말랭이 등 다양하게 만들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해부터는 천적을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처음 꽃이 피기 전까지는 친환경자재로 방제를 해주고, 꽃이 필 때쯤 벵크플랜트와 함께 천적을 넣으면 진딧물이 조금 있더라도 결국엔 천적이 점유를 하게 되어 진딧물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난관은 딸기 판매였어요. 딸기 택배를 위해 딸기

전용 상자도 만들고, 블로그 등 SNS에 홍보도 열심히 했어요. 지역 프리마켓에 참여해 우리를 알리고 딸기도 알렸답니다. 그러나 딸기는 병해와 진딧물 피해로 많이 줄었지만 봄에 딸기는 너무 많았어요. 진딧물 피해가 있어 딸기체험도 할 수 없었고, 직거래와 가공으로 해결해야 했어요.

이제 시작한 초보 농부에게 직거래는 너무 가혹했답니다. 저장성이 거의 없는 딸기는 바로바로 수확을 하고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딸기를 수확하지 못한 것들은 과숙해서 먹을 수 없게 되곤 했어요. 공판장에는 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판매할 곳이 없고 남아 있는 딸기를 보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건강하게 자란 딸기들이 갈 곳이 없더라고요. 과숙한 딸기는 딸기액비를 만들었고, 남아있는 딸기는 가공하기 위해 따고, 씻고, 가공하기를 반복했답니다. 첫째 딸기생잼을 얼마나 만들었던지 이제 수제로는 그만 만들었으면 할 정도예요.

딸기 같은 경우, 친환경 농산물이지만 공판장에 가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일반 관행 농산물과 똑같



귀농 후 첫 수확한 친환경 딸기는 판매가 쉽지않았다. 택배 전용상자도 만들고, 블로그, SNS 홍보 등을 통해 직거래를 시도했지만 적자였다. 지금은 체험행사(사진)와 가공 등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씩 해소해가고 있다.

은 기준으로 크기, 모양, 포장 상태 등을 보고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땅에서 자란 친환경 딸기는 조금 못난이 취급을 받는 듯해요. 특히나 저희는 겨울에 난방과 수막도 하지 않아 울퉁불퉁 못생긴 딸기들이 많았으니 공판이나 유통 구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시설이 갖춰진 수정 재배 딸기들은 온도와 필요한 영양들을 주기적으로 공급해주시니 딸기 크기가 크고, 모양도 좋아 공판장에서 최고의 품질로 가격이 좋아요. 일반 관행 농산물이 모양이 좋고, 크고, 때깔이 좋다고 더 좋은 가격을 받다니 좀 이해가 되지 않지

만 현실은 그렇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요. 농부들도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 소득이 좋은 구조를 따라가는 것이겠지요.

저희는 그런 방향과는 달라 딸기가 크다고 모양이 좋다고 좋은 딸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딸기가 자라는 과정이 아름다운 건강한 농산물에 맛과 향이 적절하게 좋은 딸기면 최고의 품질이 아닐까요. 딸기는 손이 많이 가는 선별보다는 너무 작거나 흠과 들만 빼고 그냥 크고 작은 딸기들이 어우러져 무게대로 팔면 안될까요? 딸기 선별과 포장에 농부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런 유통에서 요구하는 노동력이 저희는 너무 소모적인 느낌이 듭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소비자가 그 가치에 맞는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주변 지역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다 보니 아직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적어 판매에 어려움이 있지만 난방을 하지 않은 느릿느릿 딸기의 맛을 보면 달라지더라고요. 요즘 너무 맛에 민감하다보니 친환경 딸기라서 구입하는 것보다 맛이 좋아 구입을 한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움이 남는답니다.

글 이남연 농부

## 유기농업 발전

# 홍살리 과 대신택배가 함께합니다.



대신정기화물(주) 국내택배서비스, 노선(정기)화물운송, 제3자물류  
대신국제운송(주) 미국, 유럽, 아시아 국제화물운송, 복합운송주선

대신물류개발(주) 물류연구 개발 및 건설, 시설유지보수 관리  
대신복합물류(주) 무역 유통



### 농촌사회공헌인증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마을과의 협력을 통해 농촌 활력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에게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대신택배는 농촌사회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2017년 12월 제 5회 농촌사회공헌인증 수여식에서 인증을 취득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327-6)

Tel. 고객센터 043-222-4582 | 영업부 070-4313-5410~8 | 대표번호 043-255-3211 / Fax. 고객센터 043-255-3220 | 영업부 043-256-3220 | 대표번호 043-255-3220

# 단일작목 연작하는 채소에 병해충 많아

## 흙 살리기<13>

### 병원균·선충 등 증식해 장해 발생

■ 연작장해의 문제  
화학비료, 특히 질소질 비료의 과잉 시용에 의해 일어나는 다비의 피해는 과거에도 있었다. 예를 들면 벼 뿌리썩음병과 작물이 쓰러지거나, 과수원의 이상낙엽 등이다. 이것은 토양개량과 시비개선에 의해 고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비의 피해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채소재배지이다. 채소밭은 해마다 고도로 집약화되어 왔다. 그 결과 단일작물의 연작에 의해 토양 병충이 흙에 살아남고, 여기에 다비의 피해가 겹쳐 흙이 악화되어 각종 병해충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른바 채소재배지의 연작장해이다.

▲연작장해는 왜 일어나는가  
최근에는 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다. 그 결과 노지재배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에서 여러 가지 생육장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채소재배지에서 연작장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일손이 많이 들고 작물의 중

류마다 작업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채소는 한꺼번에 몇 종류를 작은 면적에 재배하는 것은 번거롭고 생산성도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단일 종류의 작목을 큰 면적에서 연작하게 된다. 이렇게 채소를 연작하면 토양 전염병의 병원균이 식물 잔재에 계속 살아남아 죽지않고 다음에 재배되는 채소에 전염되어 더 증식해 간다. 원래 흙속에서는 생존능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균일지라도 흙속에서 살아남아 병을 일으키게 된다. 선충도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연작장해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병원균과 병해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흙 속에 양분의 과잉집적과 불균형, 그리고 식물에서 유래된 유해물질(독소) 등도 수량과 품질을 저하시키고 생산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는 큰 요인이다. 흙은 기본적으로 원래 작물이 건전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



채소밭은 해마다 고도로 집약화되어 왔다. 그 결과 단일작물의 연작에 의해 토양 병충이 흙에 살아남고, 여기에 다비의 피해가 겹쳐 흙이 악화되어 각종 병해충이 많이 일어나는 연작장해가 발생한다.

러나 채소재배는 해마다 고도로 집약화되고, 1년 내내 연작 재배하거나 단기간의 윤작을 하기 때문에 과잉경작이 되어 흙에 극단적인 부담을 주게 된다. 그 때문에 흙은 불건전하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염류의 과잉집적으로 채소가 시들어 버리는 일조차 발생한다. 연작장해를 일으키는 밭의 흙은 일반적으로 수소이온농도(pH)에 이상을 초래하여 산성화되거나 반대로 알칼리성이 되는 경우도 많다. 또 흙의 양분이 소모되어 칼슘, 마그네슘, 망간, 붕소, 몰리브덴 등이 결핍되어 있다. 또 염류

가 이상 집적되어 양분 균형이 크게 무너진다. 흙의 구조가 나빠지고, 물의 침투와 유지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흙의 산성화와 양분결핍은 노지재배에서 많이 보인다. 노지에서 대량 시용된 암모니아태 질소로부터 생기는 질산이온비료의 부성분인 황산이온과 염소이온이 흙이 간직하고 있는 칼슘, 마그네슘 등의 양분을 유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반면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에서는 과잉 시용된 화학비료가 빗물에 의해 용탈되지 않고 축적된다. 그래서 고

농도의 염류가 잔류함으로써 채소의 농도장해가 일어나고, 암모니아와 아질산에 의한 가스장해가 발생한다. 최근 고도로 집약화된 채소밭에서는 생산을 높이기 위해 단일작물을 연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작물 생육에 여러 가지 장해가 발생하였다. 가장 큰 원인은 토양전염성의 병해이다. 동일 작물만을 재배하면 땅 속에 남은 뿌리의 병원균이 사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재배하는 채소에 감염되기 때문이다. 또 과잉 경작되어 흙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연작장해의 원인이 된다. 글 이태근 회장

## 땅심 살리는 퇴비 만들기<13>

## 탄질률 교정 계산식으로 질소양 결정

### ■탄질률을 교정하기 위한 계산식

$$M=C/R-N$$

M=첨가하는 질소의 비율, C=재료의 탄소함량, N=재료의 질소함량, R=교정하는 탄질률

나왕톱밥을 예로, 탄소(C) 성분=46%, 질소(N) 성분=0.05%이며 교정하는 탄질률(R)=30이라 하자. 계산식에 따라 첨가하는 질소의 비율(M)=46/30-0.05=1.48이 된다. 즉 1,000kg에 1.48%이면 14.8kg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왕톱밥 1톤에 첨가해야 할 질소 성분의 양은 14.8kg이 된다.

일반적으로 토양 유기물 가운데 탄소의 성분비는 1.724:1로 계산한다. 그러나 유기물 중 탄소의 성분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유기물 함량을 알고 있고 퇴비를 제조할 목적으로 탄소량을 구할 때는 유기물 대 탄소량을 한국의 경우 1.7:1로 환산하면 무난하다(미국은 1.68:1, 일본은 1.65:1 이다).

### ■퇴비의 원료와 발효기간에 따른 탄질률의 변화

#### ▲실례1

①원재료 : 나왕톱밥 400kg, 쌀겨 40kg, 건조계분 40kg, 수분 조절 55%

#### ②발효 과정

-퇴적한 뒤 14일째와 47일째에 뒤집기 2회 실시

-70일의 발효 기간 가운데 60℃ 이상 3주, 65℃ 이상 10일 유지

#### ③분석 결과

시료	pH	C(%)	N(%)	C/N	양이온 교환용량
나왕톱밥(生)	5.10	48.0	0.12	406.0	14.5
발효 2개월 뒤	6.95	46.2	0.95	48.0	31.0
발효 5개월 뒤	6.75	45.8	0.90	50.0	57.4
퇴비 7개월 뒤	6.65	46.0	1.02	45.1	64.0

#### ▲실례2

①원재료 : 나왕톱밥 300kg, 쌀겨 12kg(퇴적할 때 9kg, 뒤집을 때 3kg), 건조계분 9kg, 요소 7kg, 과석 3kg, 질산칼륨 1.5kg, 고토·철·붕소 약간, 나왕톱밥에 소석회 1.5kg 혼합, 수분 조절 55%

#### ②발효 과정

-퇴적하고 47일째에 1회 뒤집기

-65일의 발효 기간 가운데 60℃ 이상 10일, 65℃ 이상 10일 유지

-건조 상태를 보고 10~14일 간격으로 퇴비더미에 구멍을 뚫고 적당량의 수분을 공급하여 조절

#### ③분석 결과

시료	pH	C(%)	N(%)	C/N	양이온 교환용량
발효 전	7.10	47.5	1.95	23.8	
65일 뒤	6.75	46.1	1.55	29.1	76.5

글 석종욱 (사)흙살림연구소 대표

# ‘꽃의 도시’ 베트남 달랏

## 꽃밭지기의 농촌 생각<10>

베트남 달랏시에서 운영하는 플라워 파크로 규모도 꽤 크고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작년 3월에 방문했을 때 보다 범위가 더 넓어졌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받았다.



1월 초에 이런 정도의 꽃들을 볼 수 있다면 연중 이 수준 이상의 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으니 꽃들의 낙원이 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기후 조건이 꽃들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 이라고 할 수 있으니 꽃의 도시라 불리고 있으며 격년으로 꽃 축제도 열리며 올 12월에 꽃축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그때도 방문할 수 있었으면 한다.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꽃들과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꽃들을 동시에 심어도 잘 자라는 환경 조건이니 기후적으로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다.



위 사진 속 뉴기니 임파티엔스는 달랏의 공원이길거리에서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꽃이며 품종도 다양하고 꽃 색이 화려해서 멀리서도 눈에 띄는 꽃이다.



달랏 농대의 실험 시설로 딸기와 한국에서 들여온 인삼을 시험 재배하고 있었다. 위 사진은 한국 인삼을 시험 재배하는 하우스로 베트남에서는 한국 인삼에 대한 인기가 대단했으며 재배를 위해 시험을 하고 있는 곳이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달랏 농대와 제휴해서 과제를 수행 중인 "한국 꽃 종자회"라는 모임의 국장님을 방문하였다. 위의 사진에 있는 시설에서는 국화 삼목묘 실험을 하고 있었다.



식물 조직배양 업체 '홍담'은 기술력이 탄탄한 업체로 한국에도 몇 번 다녀갔다. 부모들 모두 달랏 농대를 졸업하고 아들도 달랏 농대를 졸업해서 대를 이어 조직 배양을 하고 있으며 사업 확대를 위해 주식 회사 '휴살림'과 제휴해서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

글 이태호 휴살림현장농민연구원

## 박석준 한의사의 음식과 건강 <9> 감

감의 성질은 차다[한寒]. 어떤 곳에서는 아주 차다[냉冷]고 하였다. 맛은 달고 독은 없다. 뽕은맛이 있다. 주로 심장과 폐, 대장에 작용한다. 한자로는 시柿라고 한다. 홍시는 다 익은 감이 붉은 색이어서 홍시紅柿라고 한 것이다. 벌이 잘 드는 곳에서 자라지만 추위도 잘 견딘다. 척박한 땅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며 가뭄에도 강하다. 그러나 알칼리성 토질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감나무에는 일곱 가지 미덕이 있다고 했다. 첫째는 오래 산다는 것, 둘째는 그늘이 많다는 것, 셋째는 새집이 없다는 것, 넷째는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다섯째는 서리 맛은 잎이 아름답다는 것, 여섯째는 열매가 아름답다는 것, 일곱째는 낙엽이 두껍고 크다는 것이다(『증류본초』).

감의 효능은 무엇보다도 찬 성질에 있다. 그래서 갈증을 없애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심장에 대한 효과로는 심장의 열을 내려주는 것이 있다. 얼굴이 붉고 가슴 속이 답답하면서 열이 나며 잠이 잘 안 오거나 불안해질 때 감이 좋다. 또한 자면서 이를 갈며 때로 헛소리를 할 때도 감을 먹으면 좋다. 몸에 열이 많으면서 코피가 나거나 피를 토할 때도 좋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갈증이 나고 오줌은 누렇게 혀가 붉어진다. 입 안이 잘 헹기기도 한다. 대소변으로 피가 날 때도 감이 좋다.

## 술과 함께 '감' 먹으면 술독 정체

폐에 대한 효능도 있어서 열이 많으면서 기침이 날 때 먹으면 좋다.

감을 말리면 꽃감이 되는데, 꽃감의 성질은 고르다. 속을 보하고 소화도 잘 시키며 기미와 꽃은 피도 없애다. 목소리도 곱게 만든다. 폐와 기관지에는 그냥 감보다 꽃감이 더 좋다. 우유나 꿀과 함께 달여 먹으면 좋다. 목소리를 좋게 하려면 꽃감을 물에 담갔다가 먹는다.

감꼭지는 딸꾹질을 가라앉히는 좋은 약이다.

감잎은 기침할 때 많이 먹는데, 성질이 차므로 몸이 찬 사람은 피한다.

그런데 감과 관련하여 아주 잘못된 습관이 있다. 그것은 술안주로 감을 먹는 것이다. 감은 술을 먹고 난 뒤 생긴 갈증은 물론 술을 깨는 데도 좋은 효과가 있지만 술과 감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감의 뽕은맛이 수렴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이 뽕은맛 곧 탄닌 성분이 술독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쉽게 취하고 술독은 빠져나가지 않게 된다. 심하면 가슴이 아파게 된다.

감을 빈속에 먹으면 타산과 펙틴이 위산과 작용하여 단단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위에 오래 머물 수 있다. 감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된다. 탄닌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빈혈 환자는 먹어서는 안 된다. 탄닌이 철분의 흡수를 막기 때문이다. 또한 고단백식품과는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탄닌과 결합하여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글 박석준 휴살림동일한의원장

### 친환경 고품질혼합유박

양분파괴가 적은 저온 성형. 냄새가 다릅니다. 토양살포 후, 발효가 빠르고 분해가 잘됩니다.



**휴나라유박**  
친환경 혼합유박-펠릿(20kg)  
4.3-1.7-1  
+유기물 70% 이상  
공시-3-3-189

목록  
공시품

### 토양관리용 미생물발효유기질

풍부한 발효미생물과 천연양분을 함유하고, 염류집적없이 비효가 빠릅니다. 흙을 살리는 친환경 종합토양관리제.



**휴살림균배양제**  
고품질토양미생물제(20kg)  
+유기물 40% 이상  
공시-3-3-152

목록  
공시품

### 고품질 발효아미노산그래놀

Non-GMO 대두박이 함유되어 질소 및 양질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기능성 특허미생물이 처리되어 토양항균력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휴살림 아미노볼**  
아미노산 그레울(15kg)  
특허미생물처리(항균)  
7.5-2.5-1  
공시-3-3-191

목록  
공시품

### 토양관리용 발효유기질펠릿

기능성 특허미생물이 처리된 발효유기질 펠릿. 피마지박이 배제되어 리신 독성에서 안전합니다.



**휴나라발효펠릿**  
균배양제 펠릿형(15kg)  
주장박, 대추박, 부식산 사용  
특허미생물처리(항균)  
공시-3-3-192

목록  
공시품



**지.이.연.을.품.은**  
**진향죽염소**

추출가공식품 (살균제품)  
흑염소혼합추출액 100%  
[고형분 5% 이상, 흑염소 14.71%(국산)]

권장소비자가격 119,000원  
(100ml X 30팩입)



**Marketo:u**  
자연이 베푼 건강한 식탁, 마켓투유

충분한 방목장에서 스트레스 없이 자란 흑염소와 최상급 한약재를 더하여 위생적인 시설과 최신 공법으로 잡내를 최대한 제거해 드시기 편한 진액입니다.

자연을 품은 건강흑염소는

- 휴살림에서 직접 개발한 **안심 사료**와 **자연친화적으로** 방목하여 키운 흑염소를 사용하였습니다.
- GMP 인증 한방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국내산 최상품 한약재를 사용(사인, 감초 수입1급)**하였습니다.
- 3중 마이크로필터 여과방식과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기름, 누린내 및 한약 슬러지를 100% 제거**하였습니다.
- 사물탕 처방전에 복령, 삼주, 사인, 감초, 생강, 대추 사용(원기회복, 기와 혈을 보함)하였습니다.
- 성마리농장 박사급인력들이 한의사, 한약사와 공동연구개발한 제품입니다.

**상품문의 및 주문전화 : 1544-1092**

**쇼핑몰주문 :**

**정월대보름 나물 준비**

 <b>건조 곤드레나물 30g 6,000원</b>	 <b>건조 취나물 30g 6,000원</b>	 <b>건조 고춧잎 50g 3,600원</b>	 <b>건조 무말랭이 150g 4,400원</b>	 <b>건조 시금치 30g 4,800원</b>
 <b>데친 곤드레나물(냉동) 200g 2,900원</b>	 <b>삶은 우거지(냉동) 500g 3,600원</b>	 <b>삶은 무청(냉동) 500g 2,900원</b>	 <b>토종 아주까리밤콩 400g 6,000원</b>	 <b>토종 선비잡이콩 400g 6,000원</b>

**휴살림 제철과일** 지금이 딱! 제철과일로 향과 달콤함을 채우세요.

 <b>유기농 사과 1kg 8,000원</b>	 <b>무농약 한단딸기 500g 10,500원</b>	 <b>주스용 토마토 3kg 10,000원</b>	 <b>유기농 간밤 160g 6,000원</b>	 <b>저탄소배 3입팩 8,000원</b>
	 <b>무농약 골드키위 1kg 7,500원</b>	 <b>친환경 대추방울토마토 1kg 6,500원</b>	 <b>친환경 토마토 1kg 4,500원</b>	 <b>친환경 방울토마토 1kg 6,000원</b>

홍살림 추천상품



유기농 백미 골든퀵 4kg 17,500원



유기농 현미 4kg 18,000원



유기농 슈퍼푸드선식 700g 42,000원



이해무 명장의 전통 참웃된장 400g 9,900원



셰프가 만든  
홈에이드 프리미엄 새우장



홍살림 들기름 250ml 15,4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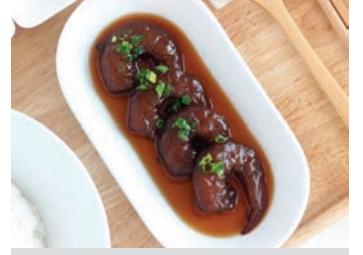
홍살림 참기름 250ml 22,000원



홍살림 볶음참깨 130g 6,500원



국산 약콩으로 만든 대학 약콩 두 유 190ml 22,500원



유기농 간장으로 만든 간간장 새우장 500g 34,500원



삼치 오븐구이 90g 4,300원



고등어 오븐구이 90g 3,500원



유기농 유자차 1kg 17,000원



항아골 청국장 120g 2,200원



간양념새우장 500g 34,500원



우리밀 쌀소면 400g 4,300원



떡국떡 500g 실온/냉동 4,100원



바삭바삭등심돈까스 1.2kg 25,000원



우리밀 감자 수제비 1kg 7,900원



홍살림 구운유정란 6알 3,500원



어린이달과자 70g 2,500원



우리밀 김치손만두 1kg 13,500원



우리밀 백밀국수 1kg 8,900원



네니아 우리밀 통팔짚빵 8입 8,500원



네니아 우리밀 흑미짚빵 8입 8,500원



무농약쌀 떡볶이 530g 6,800원



닭가슴살 야채죽 45g 4,400원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음료!



자연을 품은 건강흑염소 진액 100ml x 30포 119,000원



미엔용 30포 국산 녹용 추출액 50%, 6년근 홍삼농축액 함유 238,000원



힘엔용 30포 100% 국내산! 생녹용, 6년근 홍삼농축액 함유 288,000원



키엔용 30포 100% 국내산! 생녹용, 6년근 홍삼농축액 함유 148,000원



힘내용 30포(사은품 증정) 국산 녹용 추출액 40%, 6년근 홍삼농축액 함유 99,000원



마루 카카오닙스 100g 8,000원



친환경 우영차 60g 11,000원



유기농 양파즙 100ml x 30포 29,900원



양배추 바르게 담아 100ml x 30포 44,000원



양파바르게 담아 100ml x 30포 42,000원

꾸러미가 좋다 — 회원 후기



알찬꾸러미 - 경북 포항시 유\*님

아이밥상. 우렁된장덮밥과 당근계란말이. 흠살림에서 온 우렁으로 우렁된장덮밥. 처음 먹어본건데 다행히 맛있게 잘 먹어주었다. 계란도 흠살림에서 온 동물복지유정란. 계란말이할 때 팁! 당근 힘들게 다지지 마시고 치즈같이 당근을 갈면 아주 곱게 체 쳐져서 나와요. 호박, 당근 등 단단한 야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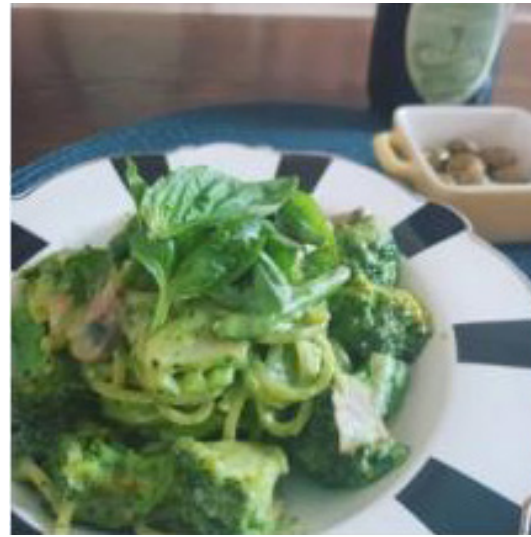
생활꾸러미 - 서울시 권\*철 님

어제 반찬이 푹 떨어져서 언제 배달오나 기다렸는데 오늘 저녁 전에 도착! 파리멸치볶음 그리고 애호박볶음, 구운 유정란. 신랑이 밥 먹다가 엄지척을 해줬다. 재료가 신선하면 맛은 보장!



생활꾸러미 - 인천시 이\*름 님

지난번 배송은 감자로 무얼 만들까 고민하다 만들어보고 싶었던 감자스프 도전.



생활꾸러미 - 충북 박\*진 님

꾸러미 재료로 시금치페스토파스타. 장보러 안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신선한 재료가 배송돼서 친환경 재료로 요리하는 게 일상.

2월 생활꾸러미  
예정 품목

2월 1주차	
품목	단위
유과	110g
전장김	40g
사골곰탕	500ml*2봉
오색떡국떡	500g
우리밀 부침가루	1봉
단호박식혜	500ml

2월 2주차	
품목	단위
연잎밥	230g*2봉
살림두부	350g
부럼세트	1봉
데친고사리	1봉
데친시래기	1봉
데친건곤드레	1봉

2월 3주차	
품목	단위
유정란	10알
살림두부	350g
플레인요거트	1개
청국장	1봉
느타리버섯	1팩
애호박	1개
쌈배추	1개

2월 4주차	
품목	단위
메추리알	1봉
꼬마새송이버섯	1봉
살림두부	350g
황태채	1봉
연근부각	1봉
콩나물	1봉
유채나물	1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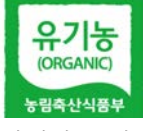
※ 품목과 단위 내용은 산지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월 과일꾸러미  
예정 품목


2월 1주차	
품목	단위
곶감	1팩
배	1봉
사과	1봉
한라봉	1봉
대추방울토마토	1봉


2월 3주차	
품목	단위
사과	1봉
배	1봉
레드향	1봉
완숙토마토	1봉
감말랭이	1봉

친환경농산물 종류 구분

 **유기농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 **유기농산물**  
유기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 **무농약농산물**  
유기 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유기축산물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 **유기축산물**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무항생제 (NON ANTIBIOTIC)**  
농림축산식품부  
● **무항생제 축산물**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친환경인증이 아닙니다.



꾸러미란 어머니가 싸주시던 보따리를 매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직거래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철 농산물이 매주 배달됩니다.

건강한 먹을거리, 꾸러미로 편안하게 받아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필요 없이 장을 봐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1주일 먹거리가 택배로 배달됩니다.



이제 장보러 가지 마세요  
**꾸러미하세요**

• 꾸러미 상담/주문전화 :  
**043-212-0935**  
shop.heuksalim.com

**알찬꾸러미**  
월4회 120,000원  
유기농 무농약 채소와 무항생제 방사유정란, 우리콩 두부 등 필수 생활꾸러미와 과일 2~3종으로 구성됩니다.  
• 발송 : 매주 수요일



**생활꾸러미**  
월4회 100,000원  
유기농 무농약 채소를 중심으로 무항생제 방사유정란, 우리콩 두부, 국산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됩니다.  
• 발송 : 매주 화요일



**채소꾸러미**  
월4회 60,000원  
매주 신선채소를 원하시는 분을 위한 꾸러미로, 유기농 무농약 채소로만 구성됩니다.  
• 발송 : 매주 화요일



**과일꾸러미**  
월2회 80,000원  
국내산 친환경 과일로, 안심하고 껍질째 드셔도 됩니다. 제철과일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송 : 매주 수요일



**미니과일꾸러미**  
월4회 80,000원  
친환경사과, 토마토, 유기농바나나와 제철과일 1종으로 구성되어 껍질째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 발송 : 매주 수요일



생 일

생일 축하합니다



- 1월 (주)흙살림 김행숙 대표, 박용국, 박영옥, 이강일, 정다영 (농)흙살림푸드 권사홍 대표, 이경재, 전석희, 이경숙 (사)흙살림연구소 임진수
- 2월 (주)흙살림 신현식, 김진석 (농)흙살림푸드 윤성희 전무, 이동민, 김성권, 이영옥, 황경숙, 함경조, 이호선 (주)흙살림디엠 도재천

흙살림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흙살림 신문이 후원회원 여러분의 사랑방이 되고자 합니다. 생일이나 돌잔치, 환갑, 칠순,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 출산과 같은 기쁜 소식은 물론 함께 슬픔을 나누어야 할 부고까지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가 새끼를 낳아 분양하고 싶은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흙살림 신문을 여러분의 소통 창구로 활용해보세요. 서로 한발자국 가까이 다가가 보자고요.

- 문의 및 소식 보내실 곳 : 이메일 silentwind@hanmail.net 전화 043-833-5004
- 이메일 제목 : <흙살림 사랑방>으로 적어 보내주세요.

흙살림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개인 및 법인 등 단체 후원도 가능

친환경농업 교육 및 컨설팅, 유기농 정보지 제작, 친환경농업 연구 등 흙살림연구소의 주요 활동은 후원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흙살림연구소의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쉬는 땅을 만들기 위한 한 톨의 밑알을 뿌려주세요. 후원금은 친환경농업기술 정보지 제작, 토종씨앗 보존 및 전파 등 우리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문의 : (사)흙살림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후원금 및 회비 납부처 : 농협 351-0763-0949-03.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부 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방울토마토 생산자 임형락 씨의 처부모 故최종학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발인 : 2019년 01월 11일 11시 00분
- 이성민 대리 외조모 故 김태옥님께서 01월 22일 별세하셨습니다. 발인 : 1월 24일 오전 12시
- 故 황대호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발인 : 2019년 01월 15일
- 흙살림푸드 이영옥여사님 시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발인 : 1월 15일 09시
- 서울급식 친환경배 강정우 생산자 모친상입니다. 발인 : 1월 23일 오전 9시
- ※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이철수 판화가의 나뭇잎 편지

겨울에 가뭄에...

바람이 삽니다. -15°C 내외의 기온이 계속되더니 언뚝의 수도관이 얼어버린 모양입니다. 물이 나오지 않네요. 겨울내 물을 대지 못하면 민물고기 몇몇마리가 언뚝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내일은 호스를 풀어서라도 물을 대야 할까 봅니다. 겨울가뭄이라고 할 만큼 눈·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부족이 어려워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실감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물값이 만길 가는 일처럼 자연에게도 힘든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겨울이, 가뭄에... *이철수*

1월 후원회원 가입

이영민(청주), 박영옥(청주), 김수식(청주), 김기현(음성)

흙살림 후원회원 명단

가림다마을영농조합, 강사영, 강승희, 구현수, 권득산, 권사홍, 권오전, 김광부, 김규운, 김남운, 김대하, 김동연, 김동진, 김만수, 김명실, 김봉기, 김생수, 김수철, 김숙원, 김영권, 김영란, 김영철, 김원섭, 김정곤, 김정승, 김준권, 김중상, 김홍대, 김행숙, 나기창, 나중연, 도재천, 라병현, 라양채, 라영환, 류훈희, 민성기, 박기환, 박동운, 박상일, 박영구, 박정국, 박정규, 박종삼, 박중수, 박종원, 박중화, 박준순, 반명수, 방미진, 방영식, 배동환, 백미숙, 백운남, 백은숙, 서성내, 서순악, 석종욱, 선호균, 성경숙, 성기남, 성윤제, 송기봉, 송동흙, 송미선, 송영환, 송인훈, 송지은, 신문수, 신언관, 신종하, 신치영, 신현식, 심민보, 심정섭, 안정택, 염선업, 오과칠, 오복수, 오영세, 원희성, 우범기, 우중서, 원순자, 육종식, 윤국현, 윤성희, 이기출, 이명순, 이명환, 이민채, 이봉휘, 이성원, 이수일, 이연호, 이영희, 이완호, 이일웅, 이재형, 이정필, 이준규, 이채원, 이철민, 이태근, 이필규, 임동영, 임원택, 임진수, 임현규, 임형락, 장동철, 장명숙, 장세규, 장소애, 전훈탁, 정구홍, 정규원, 정규태, 정기환, 정명순, 정병환, 정석조, 정쌍은, 정 은, 정인숙, 정정신, 정청천, 조기진, 조 솔, 조재환, 조정인, 조중기, 조현국, 주윤식, 주현경, 진필경, 천호균, 최경주, 최관호, 최금열, 최병국, 최재학, 최춘식, 한정화, 허상오, 홍석민, 홍용기, 홍종윤, 황대호, 황인걸

(주)세인, (주)제일그린산업, 한국농식품인증원, (주)흙살림, (농)흙살림푸드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070-4035-5979

1월 흙살림 주요 활동

날짜	장소	구분	인원	내용
2일	청주	행사	60	시무식
9일	괴산	교육	40	흙살림영농조합법인 생산자 교육 - 유기농업의 토양 관리
18일	청주	교육	30	청주시농업기술센터
30일	익산	회의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이사회

# 혼돈과 잔치



필자는 혼돈의 세계를 인류의 탄생에서부터 신석기 이전, 주로 구석기시대일 것으로 가정한다. 그렇다면 혼돈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석기 시대의 사회와 생활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현존하는 원주민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이하의 내용은 주로 마셜 살린스, 『석기시대 경제학』을 재구성한 것이다).

질서의 세계와 달리 혼돈의 세계에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 않다. 이는 수렵과 채집이라는 경제구조와 관련이 있다. 수렵과 채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동을 해야 한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이동 자체가 가장 중요한 생산력이다. 물과 식량을 찾아 계절에 따라 이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착해서는 안 되고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안 된다. 이들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원자재가 풍부하게 널려 있기 때문에(적은 인구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 예를 들면 노인이나 영아살해가 이를 가능하게 한다) 잉여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항구적인 저장수단도 발달시킬 필요가 없었다(이들은 저장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혼돈의 세계에서 잉여는 '매우 부담스러운 짐'이며 나아가 생산력을 저해하는(이동을 방해하는) 요인일 뿐이었다. 따라서 잉여에 대한 욕망은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요인일 뿐, 무한히 커질 수도 없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고 부서진 것은 그때그때 대체하거나 버리면 그만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물질적 소유에도 관심이 없다. 아무도 부를 얻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지 않는다. 이들의 극히 제한된 물질적 소유로 인해 이들은 일상적 필요와 관련된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 인생을 즐긴다. 욕망이 적기 때문에 혼돈의 세계는 물질적 압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일종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살고 있었다. 특히 비생계 부문에서의 욕망은 더욱 쉽게 충족된다. 이는 비생계를 위한 물품을 생산하기가 쉽고 무엇보다도 소유가 민주적이기 때문이다. 혼돈의 경제는 분명 낮은 단계의 것이었다. 그러나 혼돈에서의 소비는 문화적으로 가장 적합한 선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도 있는 물건을 훌륭한 재산이라고 여기며 만족한다.

혼돈의 세계에서는 대부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식량의 획득

과 준비를 위한 1인당 1일 평균 노동시간은 대개 2, 3시간 많아야 4, 5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다. 하루 이틀 일하면 하루 이들은 쉰다. 심하게는 몇 달을 쉬기도 한다. 나머지 시간은 휴식을 취하거나 이웃에 놀러가거나 이웃을 접대하는데, 특히 춤을 추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들은 지속적인 노동을 혐오한다. 욕망이 적기 때문에 목표가 소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어서 이들은 생계 문제로부터 아주 쉽게 해방될 수 있으며 과도하게조차 보이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혼돈은 여가를 누리기 위해 신석기 혁명을 거부한다. 이는 인류의 오랜 삶을 통해 얻은 지혜이다. 지금도 어떤 원시 부족은 농경민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농경을 도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농경으로 전환하면 힘든 노동을 너무 많이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농경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노예노동이다. 바이블에서도 최초의 죄인인 카인은 경작자이다.

이들이 수렵과 채집경제 구조를 유지하는 한, 정착은 식량을 구하기 위한 이동 거리를 점점 넓혀야 하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 수확이 떨어진다. 권위를 나타내는 옷이나 장신구, 견고한 집과 같이 필연적이지 않은 물품의 소유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은 오늘날 인간의 눈에는 매우 '금욕주의적'으로 보이는 관념을 갖게 된다. 이들은 최소한의 도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그 중에서도 작은 물건에 더 많은 가

치를 부여하며 어떤 물건이든 둘 또는 그 이상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혼돈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고 영원한 현재만을 지향한다. 따라서 물자를 절약하지 않으려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낭비벽이 심한 것처럼 보인다.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가도 운 좋게 짐승 서너 마리를 잡으면 곧바로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인다. 마침 접대 받는 쪽에서도 짐승을 잡게 되면 그들도 잔치를 벌인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겨 다니며 며칠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다시 이동해야 하고 별다른 저장수단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잔치는 이들의 사회적 의무다. 또한 내일도 또 다른 잔치를 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도 이런 잔치를 풍성하게 만든다. 이 믿음 역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과거로부터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에서 오는 것이다. 잔치는 소유가 아닌 나눔이다. 또한 축적이 아닌 낭비이다. 넉넉한 식량이 생겼는데도 잔치를 벌이지 않는다는 것은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여 축적한다는 말이다. 사회적 존경을 포기하고,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고 사적으로 숨기는 것이다. 은닉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은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축적을 위한 저장'이라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저장은 물건을 특정한 고정된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이다. 저장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정착해야 한다. 그러나 정착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풍부했던 '자연의 창고'는 조만간 고갈될 것이다. 기존의 수렵과 채취라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한 곳에 정착하는 순간 공동체는 파괴된다.

잔치는 잉여의 축적이 가져올 재앙, 곧 같이 잔치를 벌이지 않는 자들,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자들, 은닉한 잉여를 갖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자들을 미리 없애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잔치는 잉여의 축적, 나아가 농경과 같은 '생산력의 발전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잔치와 놀이(휴식)는 적은 욕망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노자老子 역시 욕망을 줄이라고 했지만 노자에게는 이런 장치가 없었다. 대신 노자에게는 '작은 나라'[소국小國]가 있었다. 그것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의 세계다.

이상의 논의에서 빠진 것이 있다. 하나는 이동 자체이며 다른 하나는 혼돈의 세계에서 물질을 주고받는 행위, 곧 경제다. 이동은 무작위적으로 아무 곳으로나 가서는 안 된다. 이동을 위해서는 하늘과 땅(천문지리天文地理), 동식물과 사람의 몸과 같은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혼돈의 세계에서 자연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혼돈의 세계에서 전해져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인류의 유산, 곧 농업과 의학, 장인의 기술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휴살림 동일한의원 원장, 동의과학연구소 소장

## 휴살림 친환경 충해 관리용 자재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충해관리용 자재

**충식이** 500ml

- 고농도 식물추출물 함유
- 광범위 충해관리효과
- 각종 해충, 나방류에 적용 가능
- 공시-3-5-038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충해관리용 자재

**잘들어** 500ml

- 천연식물 추출물로 안전성 검증
- 각종 해충에 적용 가능
- 공시-3-5-007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충해관리용 자재

**청달래** 1L

- 안전한 BT미생물 제제
- 나방 및 나비유충에 적용 가능
- 공시-3-5-001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친환경병충해관리보조

**질블어** 500ml

- 뛰어난 보조효과로
- 자재 사용 효율 증진에 기여
- 공시-3-4-025